

A Daily Bread

בִּיָּהּ

날짜: 5786 년, 11 월 2 일 (2026 년 1 월 20 일)
토라 묵: Bo (이리 오라)
주제: 제국이 생명을 주장할 때, YHWH 가 의미를 되찾으실 때

성경 전체를 통해 권력은 반복적으로 같은 주장을 펼칩니다: *생명은 통치하는 자의 것이다*. 토라, 예언서들, 그리고 후대의 갱신된 언약은 이에 대해 다른 선언으로 응답합니다: *의미는 YHWH 께 속한다*. 이번 주 토라 묵인 세모트(출애굽기) 10:1-13:16, 예루미야(예레미야) 46:13-28, 요한(요한복음) 19:31-37 을 함께 읽을 때, 이는 하나의 도덕적 흐름을 형성합니다—거짓 권력을 드러내고, 압제를 심판하며, 언약적 기억을 통해 희망을 보존하는 흐름입니다. 성경 전통은 이 흐름을 먼 역사가 아니라, 모든 세대에게 향하는 살아 있는 부르심으로 듣는 언어를 제공합니다.

오늘의 묵은 세페르 세모트 (출애굽기 책)에서 시작됩니다. 해방은 갑작스러운 탈출이 아니라 진리의 천천히 드러남입니다. 바로의 권력이 무너지는 이유는 약해서가 아니라 **굳어졌기 때문**입니다—*hizzuq ha-lev* (קָרַח לֵב, 마음의 강화). 성경 히브리어에서 *לב* (lev, 마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의지와 도덕적 방향의 중심입니다. 바로의 비극은 무지가 아니라 거부입니다. 그는 표적을 보고도 여전히 통제를 붙잡습니다. 재앙들이 강렬해지는 것은 신의 조급함 때문이 아니라, 진리에 대한 저항이 변화의 대가를 항상 더 깊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엘로힘은 이 펼쳐지는 드라마의 목적을 놀라울 정도로 분명하게 설명하십니다:

“네가 네 아들과 네 아들의 아들에게 내가 미츄라이임에서 행한 일과 그들 가운데 내가 행한 나의 표적들(*ototai*, תֹּתַי)을 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는 내가 내가 YHWH 임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출 10:2).

구원은 **전해져야** 합니다. 성경 전통은 자유가 이야기, 기억, 증언(*edut*, עֵדוּת)이 될 때에만 살아남는다고 주장합니다. 메킬타와 미드라쉬 라바는 재앙들이 *middah keneged middah*—측량 대 측량—으로 주어졌다고 가르칩니다. 맹목적으로 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의 도덕적 구조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심지어 어둠(*hoshekh*, חֹשֶׁךְ)조차도 스승이 됩니다: 한 사회가 자신의 빛을 숭배할 때, 결국 시야를 완전히 잃게 됩니다.

세모트의 중심에는 유월절(페사흐, פֶּסַח)이 있습니다—자유가 형태를 갖는 순간입니다. 구원은 혼란이 아니라 질서입니다. 피(*dam*, דָּם), 계명(*mitzvah*, מִצְוָה), 기억(*zikaron*, זִכָּרוֹן)이 함께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창조합니다. 토라는 명령합니다:

“그 뼈를 꺾지 말지니라” (ve'etsem lo tishberu vo, וְעַצְמוֹ לֹא תִשְׁבְּרוּהוּ) (출 12:46).

라시는 탈무드를 인용하며 온전함이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구원은 찢겨질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미츠라이임을 두려움에 떠는 도망자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존엄과 온전함(shelemut, שלמות)으로 회복된 백성으로 떠납니다. 람반은 이 명령이 자유를 지속 가능하게 만든다고 가르칩니다: 구원은 단순히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실천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규율(avodah, עבודת)을 요구하며, 그렇지 않으면 향수로 녹아내립니다.

수세기 후, 예루미야는 다시 미츠라이임을 바라보고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을 봅니다. 미츠라이임(מצרים)—'좁음'(meitzar, מצר)을 뜻하기도 하는 단어—은 다시 심판을 받습니다. 선지자는 그 몰락을 선포하지만, 날카로운 정직함으로 묻습니다:

“길르앗에 유약이 없느냐?” (렘 46:11)

제국들은 항상 회개(teshuvah, תשובה)를 요구하지 않는 치료제를 찾습니다. 변화 대신 치료를 찾습니다. 그러나 예루미야의 메시지는 절망이 아닙니다. 심판 후에는 위로가 옵니다: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렘 46:27).

유대 주석가들은 이 전환을 강조합니다. 아브라바넬은 신의 심판(din, דין)이 이스라엘에게 엘로힘의 마지막 말씀이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보존(shmirah, שמירה)이 항상 뒤따릅니다. 빌나 가온은 예레미야 46 장이 세모트와 함께 읽히는 이유를 상기시킵니다. 역사는 같은 교훈을 반복해서 가르칩니다: 제국은 힘으로 일어나지만 오만으로 무너지고, 언약은 기억과 겸손으로 지속됩니다.

이 깊은 성경적 리듬 속에서 요한 19:31-37 을 읽을 수 있습니다—대체가 아니라 메아리로. 본문은 의도적으로 출애굽을 회상합니다:

“그 뼈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요 19:36).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이는 유월절 어린 양의 꺾이지 않은 뼈로 거슬러 올라가며, 분열되지 않은 구원을 상징합니다. 탈무드는 뼈를 꺾는 것이 제물을 무효화된다고 주장합니다. 분열은 파괴를 의미합니다. 요한은 또한 피와 증인을 강조합니다:

“군인 중 하나가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찔렀더니... 그것을 본 자가 증언하였느니라” (요 19:34-35).

세모트에서 피는 마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소속의 표적(ot, תיכּ)입니다:

“피가 너희가 거하는 집들에 표적이 되리니” (출 12:13).

미드라쉬 탄후마는 피가 엘로힘의 인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언약과의 정렬(hitkashrut, התקשרות)을 표시한다고 설명합니다. 조하르는 페사흐의 피를 이스라엘을 모으고 보존하는 힘으로 묘사합니다. 요한의 장면에서 이러한 상징들이 로마 권력 아래 다시 나타나며, 제국이 몸을 상처 입힐 수는 있어도 의미를 소유할 수 없음을 조용히 주장합니다. 유대교는 여기서 신학적 동등성을 받아들이지 않지만, 상징적 의존성 자체가 출애굽 이야기의 지속적인 힘을 증언합니다.

이 모든 본문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진리가 빛납니다: **고난만으로는 구원되지 않습니다.** 기억이 구원합니다. 규율이 구원합니다. 언약이 구원합니다. 제국들은 lev 을 굳히기 때문에 무너지고, 사람들은 기억하기 때문에 견딥니다. 토라의 명령은 여전히 중력의 중심입니다:

“네 손에 표적이 되고 네 두 눈 사이에 기념이 되리라” (출 13:9).

구원은 우리가 하는 일(yad, יד)과 보는 방식(be in 'einayim, בעיני עינים)을 형성해야 합니다. 기억이 행동과 시야를 지배할 때 자유는 살아남습니다. 바로, 미츠라이임, 로마는 모두 역사 속으로 사라지지만—출애굽은 탈출의 이야기가 아니라 부르심으로 지속됩니다: **거짓 권력에 저항하라, 네가 누구인지 기억하라, 의미로 되찾긴 백성으로 살아가라.**

shalom.